

# 正倉院萬葉假名文書(乙)에 관한 一考\*

이지수\*\*

## 〈 Abstract 〉

### A Study on Borrowed-Character Expression in the Manuscripts of Jeongchangwon (Eul grade)

Up to now, we have analyzed the original text of Jeongchangwon for the borrowed-special-character(正倉院萬葉假名文書)(Eul-grade) and compared/investigated the expression of ancient special borrowed characters (上代特殊假名づかい)(Gab-grade/Eul-grade), polite expressions (敬語表記) and expression of auxiliary verbs (助動詞表記) through out the ancient literatures from the aspect of the borrowed-special-character description (借字表記) focusing on the vocabulary of the original text.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text in Chapter 2 was possible only roughly because one same original text existed in two types of form with different structure and its meaning was ambiguous. Chapter 3 addressed all the vocabularies that were subject to ancient special borrowed characters (上代特殊假名づかい) in the original text. With regard to the description of polite expressions and auxiliary verbs in Chapter 3 and 4, ancient special borrowed characters (上代特殊假名づかい;甲/乙) which were related with the inflectional form, the relevant grammatical utilization and the connection of the borrowed-special-character description(萬葉假名表記)(borrowing Chinese characters/descriptions in borrowed-character) were analyzed and then, compared with various ancient literatures.

Field : Phonology

Keywords: Jeongchangwon in borrowed-character expression, Borrowed-character expression Gab grade  
Ancient manuscripts, Manuscript character, Various literary materials

## 1. 머리말

正倉院<sup>1)</sup>문서는 奈良 東大寺 정창원에 전해지는 奈良시대의 기록문서에 대한 총칭이다. 문서의 내용은 戶籍계장등의 공문서, 諸官廳의 왕복文書, 造寺 造佛, 寫經관계의 文書 등을 포함하여서 奈良시대의 정치, 사회, 경제, 불교 등의 다양한 일면을 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문서는 變體漢文體로 기록문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 문서 중에는 天平寶字五年(761)의 萬葉假名文書(甲/乙)가 전해진다. 본고에서는 이들 문서중에서 문서乙(乙種)를 중심으로 그 原文을 분석하고 원문의 어휘를 중심으로 上代特殊假名づかい, 敬語表記, 助動詞表記 등에 관해서 상대문헌 전반을 통해서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IA5A2A03045205)

\*\* 한국의국어대학교/백석예술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1) 正倉院은 北倉文書와 東南院文書, 이외의 文書로 분류된다.

## 2. 원문의 분석

正倉院萬葉假名文書(乙)은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중간부분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두 가지의 원문이 존재한다.

[원문A]<sup>2)</sup>

- ①和可夜之奈比乃可波利爾波、
- ②於保末之末須美奈美乃末知奈流奴乎宇氣与止、
- ③於保止己(可)都可佐乃比止伊布。
- ④之可流(可)由惠爾、
- ⑤序礼宇氣牟比止良、
- ⑥久流末毛太之米於可牟毛、
- ⑦阿夜布可流可由惠爾、
- ⑧波夜久末可利太末布日之、
- ⑨於保己可川可佐奈弓末都利伊礼之米。
- ⑩太末布日、 与禰良毛伊太佐牟。
- ⑪之可毛己乃波古美比氣。
- ⑫奈波比止乃太氣太可比止(序)、
- ⑬已止波宇氣都流

[원문B]<sup>3)</sup>

- ①和可夜之奈比乃可波利爾波、
- ②於保末之末須美美奈美<sup>4)</sup>乃末知奈流奴乎宇氣与止、
- ③於保止己(可)都可佐乃比止伊布。
- ④之可流(可)由惠爾、
- ⑤序礼宇氣牟比止良、
- ⑥久流末毛太之米弓末都利伊礼之米太末布日、
- ⑦与禰良毛伊太佐牟。
- ⑧之可毛己乃波古美於可牟毛、
- ⑨阿夜布可流可由惠爾、
- ⑩波夜久末可利太末布日之、
- ⑪於保己可川可佐奈比氣奈波
- ⑫比止乃太氣太可比止(序)、
- ⑬已止波宇氣都流

2) 山田俊雄(1984) 『日本語の 歴史』 2文字とのめぐりあい 平凡社 p.357

3) 白藤禮幸(1987) 『奈良時代の國語』 東京黨出版 p.37

4) 「美美奈美」는 「美奈美(ミナミ);南」에 汀字 「美(ミ)」가 들어가거나 「御(ミ)+南(ミナミ)」로 해석함.

이상은 正倉院萬葉假名文書(乙)의 [原文A]와 [原文B]이다. 두 原文의 구조와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구조는 ①행~⑤행과 ⑬행의 경우는 [원문A]와 [원문B]가 동일하고 [원문A]의 ⑦⑧행은 [원문B]의 ⑨⑩행과 동일하다. ⑥행의 경우 [원문A]는 「久流末毛太之米/於可牟毛」, [원문B]는 「久流末毛太之米弓未都利伊禮之米太末布日」로 [원문B]의 ⑥행은 [원문A] ⑥행의 전반부에 ⑨행의 후반부와 ⑩행의 전반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원문A]의 ⑨행의 경우 전반은 [원문B]의 ⑪행의 전반부와 일치하며 ⑩행의 경우는 전반은 [원문B]의 ⑥행과 후반부는 [원문B]의 ⑦행과 일치한다. [원문A]의 ⑪행은 후반부의 「比氣。」를 제외하면 [원문B]의 ⑧행과 일치하고 ⑫행의 경우는 [원문B]의 ⑪행 후반의 「奈波」와 ⑬행을 이어서 일치한다. 본 고에서는 [원문B]를 기준으로 삼아<sup>5)</sup> 그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원문의 분석]

- ① 和可夜之奈比乃可波利爾波,

[ワガヤシナヒノカワリニハ(我が養ひの代わりに)]

「和(ワガ)夜(ヤ)之(ノ)奈比(ヤシナヒ);<sup>6)</sup> 養(やしな)ひ + 「可波利(カワリ);代わり」

- ② 於保末之末須美奈美乃未知奈流奴乎宇氣与止,

[オホマシマスミナミノマチナルノウケヨト(大坐まします南の町なる奴受けよと)]

「於保末之末須(オホマシマス)」는 敬語動詞 「マシマス(末之末須);4단」 앞에 接頭語(尊称形状語)

「オホ」가 붙음.<sup>6)</sup> 「美奈美(ミナミ)」는 「南」의 의미. 「未知(マチ);町」 + 「奈流(ナル);なる(断定の助動詞ナリの連体形)」 「奴」는 正訓字 「ヤツ」와 音仮名 「ノ」의 두가지로 해석되기도함. 「宇氣与止(ウケヨト)」는 「ウク」는[受(う)く;下二단]未然形+<sup>7)</sup> 「よ(助詞)+と(助詞)」

- ③ 於保止己(可)都可佐乃比止伊布.

[オホトコカツカサノヒトイフ]

「於保止己(オホトコ);大床」는 官位十二階級の 최상위에 해당하는 「大徳」에 해당한다는 설과 天皇의 「御膳」을 만드는 곳과 관계가 있다는 설이 있다.<sup>8)</sup> 「都可佐(ツカサ);官」는 「首/官」로 「役所/役人」의 의미. 「比止(ヒト);人」 「伊布(イフ);言ふ」

- ④ 之可流(可)由惠爾,

[シカルカユエニ(然るが故に)]

「だから/そのために。」 「由惠(ユエ)」는 「故/所以」로 理由·原因 또는 体言과 活用語의 連体形에 이어서서 接続助詞/接続詞로 사용됨.

- ⑤ 序礼字氣牟比止良,

[ソレウケムヒトラ(それ受けむら)]

「序礼(ソレ);其(それ)中稱代名詞」. 「宇氣(ウケ)」는 [受(う)く;下二단]의 未然形 + 「牟(ム)推量の助動詞(未然形 접속) + 「比止(ヒト)+良(ラ)(복수접미사)」.

- ⑥ 久流末毛太之米弓未都利伊禮之米太末布日,

5) [원문 A]는 [원문B]에 비해서 내용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존재함.

6) 「オホマシマス」를 「オホマシニマス」로 분석해서 체언 「マシ」를 「オホ」가 修飾하고 있는 형태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7) 「宇氣與止(ウケヨト)」의 「宇氣(ウケ)」부분은 四단의 명령형과 下二단의 명령형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氣(ケ)」가 乙류假名인 것을 감안한다면 下二단으로 판단된다.

8) 澤瀉久孝(1967) 『時代別國語大辭典(上代編)』三省堂 p.63

- [クルマモタシメテマツリイ레シメタマフヒ(車持たしめてまつりいれしめ給ふ日)]  
 「久流末(クルマ);車」 + 「毛太之米弓(モタシメテ);之米(メテ)는 使役의 助動詞「シム」連用形」  
 + 「末都利伊礼之米(マツリイ레シメ);之米(メテ)는 使役의 助動詞「シム」連用形」 + 「太末布(タマフ);給ふ+日(ヒ);正訓字」
- ⑦ 与禰良毛伊太佐牟。  
 [ヨネラモイタサム(米らも出たさむ)]  
 「与(ヨネ)+良(ラ)+毛(モ)」 + 「伊太佐(イタサ);出(いだ)す四단未然形」 + 「牟(ム)推量の 助動詞(未然形 접속)」
- ⑧ 之可毛己乃波古美於可牟毛。  
 [シカモコノハコミオカムモ(然もこの運み置かむも)]  
 「之可毛(シカモ)れ接続語」 + 「己乃(コノ)」 「此(この);近称代名詞」. + 「波古(ハコ);箱/運み」  
 (의미불명) + 「於可牟(オカム);置(おく) 四단의 未然形」 + 「牟(ム)推量の 助動詞(未然形 접속)」
- ⑨ 阿夜布可流可由惠爾。  
 [アヤフカルカユエニ(危ふかるが故に)]  
 「阿夜布可流(アヤフカル);의미불명」 + 「由惠(ユエ)+爾(ニ);助詞」
- ⑩ 波夜久末可利太末布日之。  
 [ハヤクマカリタマフベシ(早く罷り給ふべし)]  
 「波夜久(ハヤク);早く」 + 「末可利太末布(マカリタマフ);罷り給ふ」 + 「日之(ベシ)<sup>9)</sup>;推量の 助動詞(終止形 접속)」
- ⑪ 於保己可川可佐奈比氣奈波。  
 [オホコカツカサナヒケナバ(おほこ大床か官なひけなば)]  
 「於保己([オホコ]<sup>10)</sup> + 川可佐(ツカサ);官」 + 「奈比氣奈波;의미불명」
- ⑫ 比止乃太氣太可比止(序)。  
 [ヒトノタケタカヒトゾ(人のたけたか人ぞ)]  
 「比止(ヒト);人」 + 「太氣太可(タケタカ);의미불명」 「比止(ヒト);人+序(ゾ)」
- ⑬ 己止波宇氣都流。  
 [コトハウケツル(事は受けつる)]  
 「己止(コト)」의 경우 상대문헌에서 「言/辞」 「事」 「殊/異/別」 등으로 해석가능하고<sup>11)</sup> 「宇氣都流(ウケツル);의미불명」

이상은 [원문B]에 대한 분석이다. 일본 상대의 散文문장의 초보적인 문장으로 單文을 반복해서 겹쳐서 문장을 이어간 형식이다. 接續詞의 발달도 아직 명료하다고 할 수 없으며 連語의 형태로 문맥지시어를 포함한 정도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원문B]를 극 간략화 한다면 「-----」と---言ふ、之可流可由惠爾--、----、之可毛----、---- 로 요약되는데 이는 앞서 소개한 正倉院文書 甲<sup>12)</sup>보다는 일보 진화된 형태

9) 「日之(ベシ)」의 「日(ベ)」는 예외적 假名.

10) 「於保己[オホコ]」는 ③행의 「於保止己(オホトコ)」에서 「止(ト)」가 탈락된 형태로 해석됨.

11) 세 가지 모두 「コ(乙)ト(乙)」로 융자 되어서 가 「己(乙)止(乙)」로 세 가지 중의 한가지일 가능성은 있으나 「己止(코ト)」의 예는 『萬葉集』에서 「己等/己登/許等/許登」등으로 나타나며 「己止」의 예는 없다.

12) 甲문서를 간략화 한다면 「----、之加毛----、----、----、[聞けば----、]一、----、一、----」로 요

로 분석된다.

### 3. 上代特殊假名づかい

원문에서 上代特殊假名づかい의 고찰대상이 될 수 있는 어휘는 「ひと」「やしなひ」「みなみ」「とこ」「よね」「おく」 등이다. 본고에서는 상대문헌전반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이들 어휘의 上代特殊假名遣(づかい)(甲/乙)表記에 대하여 살펴보고 본고의 원문어휘와 비교/고찰 해 보고자 한다.<sup>13)</sup>

#### 3.1 「ひと」

원문에서 「ひと」는 ③행의 「於保止己(可)都可佐乃比止伊布」와 ⑤행의 「序禮宇氣牟比止良」 ⑩행의 「奈波比止乃太氣太可比止(序)」 등의 3회의 용례를 보인다. 상대문헌에서 「人(ひと)」의 표기는

- ① 命(いのち)の全(マタ)けむ比登(ひと)は <記 景行>
- ② 顯見蒼生<宇都志枳阿高島比等久佐> <神代紀 上>
- ③ 有<sup>ニ</sup> 豊玉姬侍者<sup>一</sup> 持<sup>テ</sup> 玉宛<sup>ニ</sup> 当<sup>リ</sup> 汲<sup>テ</sup> 井水<sup>一</sup> 見<sup>キ</sup> 人影在<sup>ニ</sup> 水底<sup>一</sup> 酌取之不<sup>レ</sup> 得<紀 神代下>
- ④ わくらばに比等とはあるを比等並に吾も作るを <萬 892>
- ⑤ 比登豆麻とあぜか其を言はむ然らばか隣の衣を借りて着なはも <萬 3471>
- ⑥ しき島の大和の國に人ふたり有りとし思はば何か歎かむ <萬 3249>
- ⑦ 天地の開闢けしより以來に黄金は人國(ひと)より獻ることは有れども <12 詔>
- ⑧ さ比登夜もみねてむしだや <風土記 肥前 松浦郡>
- ⑨ 髑髏(ひとかしら)<比止加之良>在<sup>ニ</sup> 于奈良山溪<sup>一</sup> <靈異記 上一二話興福寺本>
- ⑩ 日本紀私記云、人民比止久佐(ひとくさ)、或說云於保无太加良(オホムタカラ) <和名抄><sup>14)</sup>

등으로 나타난다. ③⑥⑦에서는 正訓字의 표기가 ①②④⑤⑧에는 音假名표기 「比登(乙)」 「比等(乙)」 가 다소 늦은 시기의 ⑨⑩에는 音假名표기 「比止(乙)」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人(ひと)」의 표기는 「佛足石歌」 21首에서는 총8회의 용례 「比止(ヒト)」<sup>15)</sup>를 보였다. 이처럼 「人(ひと)」는 상대문헌에서 전반적으로 「ひ(甲)と(乙)」 두 음절 모두에서 정연한 표기가 나타났다.<sup>16)</sup>

약된다.(이지수(2014.9) 「正倉院萬葉假名文書(甲)에관한一考」 『일본어학연구』 제41집 한국일본어학회 pp.131-148)

13) 본고의 2장~4장에서의 예문은 萬葉假名 原文만을 넣으면 萬葉假名에 익숙치 않은 경우 그 이해도가 떨어지고 原文과 訓讀文 모두를 넣으면 지면이 부족해지므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 예문은 訓讀文을 넣고 논제가 되는 부분만을 萬葉假名로 처리함.

14) 『和名(倭名)類聚抄』 和名(和訓)이 萬葉假名으로 표시됨, pp.931-938

15) ① 「毛呂比止乃多米爾」(제6구) ② 「曾太礼留比止乃」(제4구) ③ 「与伎比止乃」(제1구) ④ 「比止爾伊麻世可」(제2구) ⑤ 「與比止乃」(제3구) ⑥ 「比止乎於保美」(제3구) ⑦ 「美爾久留比止乃」(제2구) ⑧ 「比止乃微波」(제1구)

16) 「ヒ(甲)」 「比·卑·必·賓·嬪·毗·避·(日·檜·永)」

「ヒ(乙)」 「非·斐·肥·悲·飛·被·彼·秘·妃·費·(火·干·乾)」

## 3.2 「やしなひ」

원문에서 「養ひ(4단)」는 ①행의 「和可夜之奈比乃可波利爾波」으로 나타난다. 「やしなひ」는 상대문헌에서

- ① 我独持<sup>2</sup> 抱王子無<sup>2</sup> 親族部之國<sup>甲</sup> 唯独難<sup>2</sup> 養育比陀斯奉之<sup>2</sup> 云〈上宮記逸文〉
- ② 水底ふ臣のをとめを誰擲始難播(ヤシナハ)む---畏くともあれ擲始難破(ヤシナハ)む  
〈仁徳紀16年〉
- ③ 汝宜<sup>2</sup> 自養<sup>2</sup> 即養<sup>2</sup> 児於宮下<sup>2</sup> 〈雄略紀 6年〉
- ④ 餉也 夜志奈不(ヤシナフ)也 〈新撰字鏡〉

등으로 「養/育/饗/亨/牧」 등의 正訓字표기가 나타나고 「ヤシナフ」의 音假名표기 「擲始難破(ヤシナハ)/夜志奈不(ヤシナフ)」 등의 용례가 존재한다. 또한 예문①의 경우는 「養育比陀斯奉之」의 「養育比陀斯」에서 「[正訓字;養(やしなう/ひだし)+正訓字;育(やしなう/ひだし)]+[音假名;比(ひ)+音假名;陀(た)+音假名;斯(し)]」의 구조로 판단된다.<sup>17)</sup>본문의 「やしなひ」는 동사 「養(やしなひ);4단」의 連用形으로 판단되며 音假名표기 「ヤシナヒ(夜之奈比)」로 표기되어졌다. 上代假名遣에서는 「養ひ(4단)」의 경우 「連用形ヤシナヒ(甲)/已然形ヤシナヘ(乙)/命令形ヤシナヘ(甲)」이 고찰이 가능하나 본문의 「ヤシナヒ」는 甲류자 「比」로 표기되어졌다.

## 3.3 「とこ」

원문에서 「とこ」는③행의 「於保止己(可)都可佐乃比止伊布」와 ⑩행의 「於保己可つ<sup>18)</sup>可佐奈比氣奈波」로 나타나는데<sup>19)</sup> 「とこ」는 상대문헌에서

- ① をとめの登許の辺にわが置きし劍の大刀その大刀はや 〈記 景行〉
- ② 明星の開くる朝はしきたへの登許の辺去らず 〈萬 904〉
- ③ 玉の道の畏回到草手折り柴取り敷きて等許自母能打臥い伏して 〈萬 886〉
- ④ 蟋蟀の吾が床のへに鳴きつつもとな 〈萬 2310〉
- ⑤ 彼方の埴生の小屋に小雨零り床さへ濡れぬ身にそへ我妹 〈萬 2683〉
- ⑥ あゆち漱永上姉子は我來むと止許離るらむやあはれ姉子を 〈熱田縁起〉
- ⑦ 眞床追衾 〈神代紀下〉
- ⑧ 床止己 〈新撰字鏡〉

등으로 나타난다. 예문 ④⑤⑦⑨에서는 正訓字표기 「床」가 예문①②③⑥에서는 「登許/等許/止許」등으로 音假名표기가 나타난다. 「とこ」는 「と」와 「こ」로 분리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と」는 「登許/等許/止許」의 「登/等/止」로 모두 乙류가명<sup>20)</sup>으로 표기되어졌고 「こ」는 「登許/等許/止許」의 「許」로 역시

17) 「〈上宮記逸文〉에관한일고(2012.11)」 일어일문학연구제83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407-427

18) 이 부분은 「つ」는 「川」인 견해도 있다. 실제로 假名 「ツ(川)」은 드물지만 『萬葉集』 「祝詞」 『華嚴經音義』 등에서 「ツ(川)」의 용례가 소수 존재한다.

19) ⑩행의 「己」는 ③행의 「止己」에서 「止(卜)」가 탈락된 형태로 해석됨

乙류<sup>21)</sup>로 표기되어져서 정연한 乙類假名 표기를 보였다.

### 3.4 「よね」

원문에서 「よね」 ⑦행의 「与禰良毛伊太佐牟」로 나타난다. 상대문헌에서 「よね」는

- ① 鼠の家与禰つきふるひ木をやりて引き出だす四と言ふかそれ---与禰都岐不留比者、是粉名也〈歌式〉
- ② 伊勢國駄五十匹遇- 於菟田郡家頭-、仍皆기·米而令·乘·步者-、  
到- 大野- 以日落也 〈天武紀元年〉
- ③ 米与禰、穀實也 〈和名抄〉
- ④ 米ヨネ稻米イネノヨネ 〈名義抄〉

등으로 나타난다. 예문①에서는 音假名표기 「与禰」로 예문②에서는 正訓字 「米」로 예문③의 〈和名抄〉에서는 「米與禰」로 正訓字와 音假名표기가 병기되어져 있고 예문④의 〈名義抄〉에서는 「米(ヨネ)稻米(イネノヨネ)」등으로 나타난다. 예문①③의 「與(乙)禰」와 원문의 「與(乙)禰」모두 동일한 假名으로 乙類假名으로 정연하게 표기되었다.

### 3.5 「おく」(おかむ;4단)

원문에서 「おく」는 ⑧행의 「之可毛己乃波古美於可牟」로 나타난다. 「於可牟(オカム)」는 「おか」는 「置く(四단)未然形」+む(推量助動詞;未然形접속)로 분석되며 상대문헌에서 「おく」는

- ① 白妙に·雪はふり於吉オキて 〈万 4003〉
- ② 夕凝の霜置オキにけり 〈万 2692〉
- ③ をとめの床の辺に我が淤岐しつるきの刀その刀はや 〈記 景行〉
- ④ 吾が背子が手馴れのみ琴土に意加めやも 〈万 612〉
- ⑤ 高橋の井の清水をらまくを直ぐに於伎て出でまくを直ぐに於伎て 〈琴歌譜〉
- ⑥ 畏も置ず思ひぞ 吾が来る 〈万 942〉
- ⑦ 我はもよ女にしあれば汝を岐て男はなし汝を岐て夫はなし 〈記神代〉
- ⑧ 雀公鳥間まし於家 〈万 3785〉
- ⑨ 大君に奉らふ汝が形は於柯むあきづ島やまと 〈雄略紀 4年〉

등으로 나타난다. 예문①②는 「降りとどまる。」 예문③④는 「物を置く。供える。設ける。」 예문⑤⑥은 「さしおく。放っておく。」 예문⑦⑧는 「残して置く。後に留め置く。」 예문⑧은 「時空間などをへだてる。」의 意味이다. 예문②⑥은 「置」의 正訓字표기 예문①③④⑤⑦⑧⑨는 「於吉/淤岐/意加/於伎/を岐/於家/於柯」등의 音假名표기로 분석된다. 「おく」는 4단동사로 「未然形(オカ)/ 連用形(オキ)/ 終止形(オク)/

20) 「ト(乙)」 「止·等·登·騰·苔·台·騰·藤·鳥·十·跡·常」  
「ト(甲)」 「刀·斗·都·土·度·妬·社·圖·塗·徒·渡·戶·聰·門·利·速·疾·銳」  
21) 「コ(乙)」 「己·許·巨·居·去·虛·忌·擧·據」  
「コ(甲)」 「古·故·高·庫·姑·孤·枯·固·願 (子·兒·小·粉)」

連體形(オク)/ 已然形(オケ)/ 命令形(オケ)」 등으로 활용한다. 예문④⑥⑨은 未然形 예문①②③⑤⑦은 連用形 예문⑧은 命令形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上代特殊假名遣에 대해서 고찰해 볼 수 있는 부분은 「連用形(オキ)甲/ 已然形(オケ)乙/ 命令形(オケ)甲」 인데 앞선 音假名표기 중에서 連用形은 ①③⑤⑦의 「於吉/ 淤岐/ 於伎/ を岐」 이고 命令形은 예문⑧ 「於家」 이다 連用形の 예문에서는 「於吉/ 淤岐/ 於伎/ を岐」 의 「吉/ 岐/ 伎」 로 모두 甲류<sup>22)</sup>로 정연하게 표기되어졌고 命令形の 예문서는 「於家」 의 「家」 로 甲류<sup>23)</sup>로 표기되어져서 命令形の 표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원문중의 「ひと」 「やしなひ」 「みなみ」 「とこ」 「よね」 「おく」 등의 어휘를 중심으로 上代特殊假名づか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ひと」 「とこ」 「よね」 등은 비교적 정연한 표기를 보였으며 「やしなひ」 「みなみ」 는 상대문헌 전체에서 용례가 적어서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돈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おく」 의 경우는 「連用形(オキ)甲/ 命令形(オケ)甲」 에서 비교적 정연한 표기가 나타났다. 乙문서는 甲문서에 비하여 예외가 적은 편이었고 이들 甲/乙文書는 「カ(可/加)」 의 표기와 「タ(太/多)」 의 표기에서 假名の 차이를 보였으며 「コ」 의 甲乙표기는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경어의 표기

원문에서 경어표기의 고찰대상이 될 수 있는 어휘는 ②행<sup>24)</sup> 「於保末之末須(オホマシマス); 大坐(まし)ます」 의 「マシマス」 와 「オホ」 ⑥행 「久流末毛太之米弓末都利伊禮之米太末布日(クルマモタシメテマツリイレシメタマフヒ)」 의 「マツル」 와 「タマフ」 ⑩행의 「波夜久末可利太末布日之(ハヤクマカリタマフベシ)」 의 「マカル」 이다.<sup>25)</sup>

### 4.1 「マシマス」 의 표기

앞선 원문에서 「マシマス」 는 「居ル」 의 존경어 「マス(坐/在)」 에 존경의 보조동사 「マス」 가 더해져서 경의를 표현하는 중첩의 경어표현<sup>26)</sup> 이다.

#### 4.1.1 본동사 「マス」

「マス」 는 상대문헌에서 4단동사와 그 4단동사에서 파생된 下二단동사로 나눈어서 그 성격을 살펴볼도록 한다.

「マス」 4단

① 大君は千歳に麻佐(まさ)む白雲も三船の山に絶ゆる日あらめや <万 243>

22) 「キ(甲류)」 「支·吉·岐·伎·枳·企·祗·祁·寸 (來)」

「キ(乙류)」 「歸·貴·紀·畿·奇·騎·綺·寄·記·基·機·己·既·氣 (城·木)」

23) 「ケ(甲류)」 「祁·家·計·鷄·介·谿·價·係·結·稽·啓」

「ケ(乙류)」 「居·氣·希·擧·既·該·戒·階·開 (毛·食·飼·消)」

24) 행의 기준은 제3장/ 제4장 모두 [원문B]를 기준으로 한다.

25) 이들 중에서 「タマフ」 의 경우 「甲문서」 (2014.09)에서 다루었으므로 「乙문서」 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6) 上代敬語의 특징은 最高敬語/絶對敬語/自敬表現 등이 있는데 이는 最高敬語에 해당한다.

- ② 放ち鳥荒びな行きそ君座(まさ)ずとも <万 172>
- ③ 恒<sup>ニ</sup>如<sup>ク</sup>石而、常堅不<sup>レ</sup>動坐 <記神代>
- ④ 大君は常磐ときはに麻佐マサむ。橘の殿の橘ひた照りにして。 <万18권 4064>.
- ⑤ わが背子が国へ麻之なば작公鳥鳴かむ五月はさぶしけむかも <万 3996>
- ⑥ ---平けくま幸く座ませと--- <万 443>
- ⑦ むぐらはふ賤しきやども大君の座まさむと知らば玉敷かましを <万 4270>

①~⑦은 [坐(マ)스;4단]의 예문으로 예문①~④는 「アリ·居리」 예문⑤⑥은 「行ク」 예문⑦은 「來ル」의 의미이다. [坐(マ)스;4단]는 「未然形(マサ)/連用形(マシ)/終止形(マス)/連體形(マス)/已然形(マセ)/命令形(マセ)」 등으로 활용된다. 예문①②④⑦은 未然形 예문⑤는 連用形 예문③은 終止形 예문⑥은 命令形에 해당한다. 借字의 체계로 분석하면 예문②③⑥⑦은 正訓字 「座(マサ/マス/スセ)」로 예문 ①③④⑤에서는 音假名 「麻佐/麻之」 등으로 나타난다. 上代特殊假名遣의 관점으로는 4단동사가 「連用形(甲)/已然形(乙)/命令形(甲)」 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マス(4단)」의 경우는 連用形 「マシ」 已然形 「マセ」 命令形 「マセ」의 「シ」「セ」는 甲乙류로 구분표기 되어지지 않으므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マス」 下二단

- ① 見<sup>ニ</sup>感其孃子<sup>ヲ</sup>、坐<sup>リ</sup>於<sup>ニ</sup>己中<sup>ニ</sup>而盛樂 <記景行>
- ② 造<sup>リ</sup>宮、不日權奉<sup>ニ</sup>安置<sup>ス</sup>、乃詣<sup>ニ</sup>京都<sup>ニ</sup>求<sup>リ</sup>迎<sup>ニ</sup>二王<sup>ヲ</sup> <顯宗前紀>
- ③ 為<sup>ニ</sup>皇太子<sup>ヲ</sup>請<sup>リ</sup>僧而設<sup>リ</sup>齋 <推古紀29年>
- ④ 住吉の波づま君が馬乘衣。 さひづらふ漢女をませ[座]て縫へる衣そ。 <万7 1273>
- ⑤ ---君の御代御代敷きませ[麻世]る四方の国には、山河を広みあつみと--- <万18 4094>

①~⑤는 [坐(マ)스;下二단]의 예문으로 「坐らせる/來させる/行かせる」의 의미의 존경어이다. [坐(マ)스;4단]에 사역의 의미를 더한 것이다. 예문①~④는 「坐/置/設」 등의 正訓字 표기가 나타나고 예문⑤에서 「麻世」의 音假名표기가 나타난다. [坐(マ)스;下二단]는 「未然形(マセ)/連用形(マセ)/終止形(マス)/連體形(マスル)/已然形(マスレ)/命令形(マセ)」 등으로 활용된다. 이들 활용형 중에서 上代特殊假名遣의 관점으로는 下二단동사는 「未然形(乙)/連用形(乙)/命令形(乙)」 등의 활용의 경우를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예문 ⑤에서 「麻世」의 경우 連用形으로 乙류의 假名사용이 원칙이지만 「セ」의 경우 甲乙류로 구분표기 되어지지 않으므로 고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4.1.2 보조동사 「マス」

- ① 人の植うる田は植<sup>ル</sup>麻佐(まさ)ず <万 3746>
- ② 朕をも導き護末須己が師をやたやすく退けまつらむ <28詔>
- ③ 高殿を高知り座まして <万 38>
- ④ 水穂の国に手向けすと天降り座ましけむ <万 3227>
- ⑤ --- (尼理願は)山辺を指して晩闇と隱りまし[益]ぬれ--- <万3권 460>
- ⑥ 大君の命畏み、大荒城の時にはあらねど雲隱ります座。 <万3 441>

- ⑦ 大伴の御津の松原、かき掃きて吾立ち待たむ。早や歸りませ座勢。〈万5 895〉  
 ⑧ 春日野に友の鳴き別れ、歸り益ます間も思ほせ。吾を 〈万10 1890〉  
 ⑨ ---惜しみつつ悲しび麻世ませ若草の妻も子等も彼此に多に囲み居 〈万20 4408〉

예문 ①~⑨는 「마스」가 보조동사로 쓰여진 예로 「본동사(植ゑ/導き/高知り天降り隠り/歸り悲しび) + 「보조동사(마스)」의 구조로 보조동사 「마스」는 본동사에 下接해서 본동사의 동작을 행하는 자에게 敬意를 나타낸다. 동사의 종류도 앞선 「마스」와 같이 4단활용으로 「본동사(植ゑ/導き/高知り天降り隠り/歸り悲しび) + 「未然形(マサ)/連用形(マン)/終止形(マス)/連體形(マス)/已然形(マセ)/命令形(マセ)」로 활용하게 된다. 예문①은 未然形 예문③④⑤은 連用形 예문⑥은 終止形 예문②⑧은 連體形 예문⑨은 已然形 예문⑦은 命令形에 해당한다. 借字체계로 분석해 본다면 예문 ③④⑥⑦의 경우는 正訓字 「座」로 예문 ①②⑨의 경우는 音假名 「麻佐/末須//麻世」등으로 用字되었으며 예문⑧의 경우는 「歸り益ます間も」의 「益(ます)」는 訓假名표기로 판단된다. 또한 예문⑦의 경우는 「早や歸りませ座勢」에서는 「座(正訓字)+勢(音假名)」의 구조로 正訓字표기에 音假名 「勢(セ)」를 덧붙여서 그 활용형이 命令形임을 어형지시한 표기이다.<sup>27)</sup>

#### 4.1.3 「マシマス」

「マシマス(4단)」는 원문이외에 상대문헌에서

- ① 天皇大御寿、然則大御寿更三年大坐坐支 (オホましまし)키 〈古文書2 天平19年〉  
 ② 共ニ 天地日月ニ 不<sub>レ</sub>動、欲<sub>レ</sub>將<sub>レ</sub> 大坐<sub>ニ</sub> ましまさ 〈古文書 12〉  
 ③ 見<sub>下</sub> 天照大神方まさ<sub>ニ</sub>織<sub>下</sub> 神衣<sub>下</sub> 居まします<sup>中</sup> 齐服殿<sub>上</sub>  
 天照大神在ましまし<sub>テ</sub> 於天上<sub>ニ</sub> 曰 〈神代紀上〉  
 ④ 其失洞<sub>下</sub> 達雄胸<sub>下</sub> 而至<sub>下</sub> 高皇產靈尊之座まします前<sub>下</sub> 也 〈神代紀下〉  
 ⑤ 天皇聞<sub>下</sub> 神言<sub>下</sub>、有(まします)<sub>下</sub> 疑之情<sub>下</sub> 〈仲哀紀8年〉  
 ⑥ 尊<sub>レ</sub>も御坐(オホまします)か日の宮の聖の御子の天の下に御坐(オホましまし)てく(続後紀2年)

「居/在/坐/有」등의 正訓字표기가 주로 나타난다. 원문②행 「於保末之末須(オホマシマス);大坐(まし)ます」는 「居ル」의 尊敬語 「マス」에 尊敬의 補助動詞인 「マス」를 반복함으로써 보다 존경도를 높이고 역시 존경의 의미인 「オホ」를 다시 앞에 덧붙여서 최상의 경의를 표현한 것이다.<sup>28)</sup>

27) 이러한 어형지시의 표기는 유사한 표기체계를 갖는 신라향가 표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국어학자들은 이를 「말 음첨기(末音添記)」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김완진(金完鎭(1980))은 이를 다시 「순정첨기/대체첨기/부가첨기/확인첨기」등으로 양식을 분류했으며 이종철(李鐘徹(1991))은 이를 萬葉假名の 용법과 비교정돈해서 「具書:そなえがき」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필자(2006)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여서 『萬葉集』 내에서 중복첨기(선행/후행/중복)로 정돈한 바 있다. 결국 이러한 용자법은 일부(概念語)는 소멸하고 일부(活用語)는 정착하여서 오늘날의 「送り假名」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28) 주24와 동일함.

## 4.2 「マツル」의 표기

원문에서 「マツル」는 ⑥행의 「久流末毛太之米弓末都利伊禮之米太末布日、(クルマモタシメテマツ  
リイレシメタマフヒ)」로 나타난다. 「マツル」는 상대문헌에서

- ① 石立たす少名御神の--麻都理來し御酒ぞあさずをせ <記 仲哀>
- ② 朝霧の乱るる心言に出でて言はばゆゆしみと波山手向の神に幣麻都理아가乞ひしまく <万 4008>
- ③ 古へよ今をつつに万調麻都流つかさと作りたるそのなりはひを雨降らず日の重ねれば植ゑし田  
もまきしはたも朝ごとにしほみ枯れゆく <万 4122>
- ④ やすみししわご大君は平らけく長くいまして豊御酒麻都流 <続紀天平15年>
- ⑤ ---畏みて仕へ摩都羅まつらむ。拜みて仕へまつら摩都羅む。 <紀歌謠 102>
- ⑥ 見まつり奉て未だ時だに変わねば、年月の如ほゆる君。 <万4권 579>
- ⑦ 韓国に行き足らはして帰り來む丈夫武雄に御酒たてまつる麻都流。 <万19권 4262>
- ⑧ 五十串立て神酒座ゑまつる奉神主の、うずの玉蔭見れば賞しも。 <万13권 3229>
- ⑨ 降る雪の白髪までに大君に仕へまつれ麻都礼ば、貴くもあるか。 <万17권 3922>

등으로 나타난다. 예문①~예문⑨는 [四段동사 「(マツル)」]에 관한 예문으로 예문①~④는 祭祀/獻上의 의미인 본동사<sup>29)</sup> 예문⑤~⑨는 겸양의 의미의 보조동사에 관한 예문이다. 예문⑥⑧에서는 正訓字표기 「奉」가 나머지①②③④⑤⑦⑨의 예문에서는 「摩都羅/麻都流/麻都禮/麻都理」 등의 音假名표기가 나타난다. 상대문헌에서 [四段동사 「マツル」]는 「未然形(ハツラ)/連用形(マツリ)/終止形(マツル)/連體形(マツル)/已然形(マツレ)/命令形(없음)<sup>30)</sup>」 등으로 활용하는데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문은 ⑤未然形으로 예문①②⑥⑧은 連用形으로 예문④⑦은 終止形으로 예문③⑧은 連體形으로 예문⑨는 已然形으로 분석된다.

- ⑩ 心さへ奉有まつれる君に、何をかも言はず言ひしと吾がぬすまはむ。 <万11권 2573>
- ⑪ やすみしし君が大君の常宮と仕へ奉流まつれる雜賀野ゆ、背向に見ゆる沖つ島--- <万6권 917>

예문⑩~⑪는 [下二段동사 「(マツレ)」]에 관한 예문으로 예문⑩의 「奉有まつれる君に」과 예문⑪의 「仕へ奉流まつれる雜賀野ゆ」을 [下二段동사 「(マツレル)」]의 연체형의 용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sup>31)</sup>실제로 「マツル」는 『萬葉集』에서 앞서 언급한 본동사(祭祀/獻上)의 예는 25예 겸양의 보조동사의 예는 29예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이들 보조동사는 주로 「仕ふ」「立つ」의 본동사에 「マツル」가 보조동사로 이어져 「仕へまつる」「立てまつる」의 형태로 완성되며 중고이후로 진행되어 지는데 상대문헌 중 비교적 시대가 후대에 해당하는 「宣命」<sup>32)</sup>등에 빈도수가 증가하여 나타나게 되며 이어서 상대의 본동사로서의 「マツル」는 쇠퇴되어진다.

29) 예문 ④의 경우는 본동사이지만 앞선 예문①~③과 다소 상이한 의미로 尊者의 食飮을 의미한다

30) 「マツル」는 그 의미상 명령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대경어의 성격상 「宣命」 등에는 존재한다.

31) 吉田金彦(1947) 『上代語助動詞の史的硏究』 p.54

32) 「宣命」과 「祝詞」의 경우는 그 성격상 「記紀歌謠」나 『萬葉集』 보다는 「仕へまつる」「立てまつる」가 빈출하게 된다.

## 4.3 「マカル」의 표기

원문에서 「マカル」는 ⑩행의 「波夜久末可利太末布日之(ハヤクマカリタマフベシ)」로 나타난다. 「マカル」는 상대문헌에서

- ① 日向諸県君牛仕<sup>ニ</sup>于朝庭<sup>ニ</sup>、年既之不<sup>レ</sup>能<sup>レ</sup>仕、仍致まかり仕、  
退まかる<sup>ニ</sup>於本土<sup>ニ</sup> [致仕万加利奈牟] 〈応身紀 13年 私記丙本〉
- ② 大宮人の退出まかりデて遊ぶ船には〈万 257〉
- ③ 自<sup>レ</sup>彼罷まかり[万可利まかり]下 〈靈異記上5話興福寺本〉
- ④ 吾今奉<sup>レ</sup>教將<sup>レ</sup>就まかりなんと<sup>ニ</sup>根国<sup>ニ</sup> 〈神代紀上〉
- ⑤ 枉<sup>レ</sup>道拜<sup>ニ</sup>伊勢神宮<sup>ニ</sup>、仍辞<sup>ニ</sup>于倭姫命<sup>ニ</sup>曰、今被<sup>ニ</sup>天皇之命<sup>ニ</sup>、  
而東征將<sup>レ</sup>誅<sup>ニ</sup>諸叛者<sup>ニ</sup>、故辞之 〈景行紀40年〉
- ⑥ 車持君行まかりて<sup>ニ</sup>於築紫国<sup>ニ</sup>而悉技<sup>ニ</sup>車持部<sup>ニ</sup> 〈履中紀5年〉
- ⑦ わが背子しけだし麻可良まからば 〈万 3725〉
- ⑧ 難波津に装ひ装ひて、今日の日や出でてまから麻可良む。見る母無しに。〈万20권 4330〉
- ⑨ ---唐の遠き境に遣はされまかり麻加利いませ、--- 〈万5 894〉
- ⑩ 石の上布留の尊は--- 大君の命畏み、天さかる夷部にまかる退。〈万6권 1019〉
- ⑪ 惑所謂泉津平坂者、不<sup>ニ</sup>復别有<sup>ニ</sup>処所<sup>ニ</sup>、但臨<sup>ニ</sup>死まかる氣絶之際是之謂 〈神代紀上〉
- ⑫ 志賀津の子らが罷道まかりぢの川瀬の道を見ればさぶ 〈万 218〉
- ⑬ 忽ちに朕が朝を離りて罷まかりましぬれば言はむすべも無く為むずべも知らに悔しび賜ひ〈51詔〉

등으로 나타난다. 「マカル」四段동사로 예문①~⑩는 「퇴출하다」 「먼곳으로 가다」의 의미이다. 예문①~⑬은 앞선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죽다/운명하다」의 의미이다. 예문①②③④⑤⑥⑩에서는 正訓字표기 「退/退出/罷/就/辞/行」가 나머지①③⑦⑧⑨의 예문에서는 「萬加利/萬可利/麻可良/麻加利」등의 音假名표기가 나타난다.<sup>33)</sup> 상대문헌에서 四段동사 「マカル」는 「未然形(マカラ)/連用形(マカリ)/終止形(マカル)」등으로 활용하는데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문⑧은 未然形으로 예문①②⑨은 連用形으로 예문④⑩은 終止形으로 예문③⑬은 連體形으로 분석된다.

## 5. 조동사의 표기

상대에 있어서 조동사표기는 打消推量 「マシジ」 尊敬·親愛 「ス」 繼續·反復 「フ」 등이 표기에 나타나고 있고 이외에는 受身·可能·自發의 「ユ」 「ラユ」와 可能的 「カツ」 등이 있다. 원문에서 조동사표기는 ⑥행에서 2회 나타나는 「久流末毛太之米於可牟毛弓末都利伊禮之米太末布日」의 使役의 「之米(シメ)」와 ⑤행 「序禮字氣牟比止良」과 ⑦행 「與禰良毛伊太佐牟」 ⑧행 「之可毛己乃波古美於可牟毛」의 推量の 「牟(ム)」와 ⑩행 「波夜久末可利太末布日之」의 推量の 「日之(ベシ)」 등이다<sup>34)</sup>. 본고에서는 사역의 「シ

33) 예문①과 예문③에서는 正訓字표기와 音假名표기가 併記되어 있다.

34) 推量の 조동사 「ム」 「シム」의 표기에 관해서는 「正倉院萬葉假名文書(甲)에관한一考(2014.9)」에서 정돈한

ム」의 표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 5.1 「シム(使役)」의 표기

상대에 있어서 使役의 조동사에는 「シム」 「스」가 존재했지만 「스」의 경우는 존재가 미약해서 중고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원문에서 「シム」는 ⑥행 「久流末毛太之米於可牟毛弓末都利伊禮之米太末布日」에서 2회의 용례를 보인다. 『萬葉集總索引』에 의하면 「シム」는

- ① --竜神に頼んで降らせた[令落]雪のそのかけらが--- <2권 104>
- ② ---夕方になると潮水を満たし[塩乎令満]明け方になると引き潮にする[塩乎令干]---- <3권 388>
- ③ ---妻に絶えず逢わせたまえという願いからです[相見染跡衣] <3권 300>
- ④ あなたを紹介してくれた[相令<sup>レ</sup>知]人を--- <4권 494>
- ⑤ ---人の眉毛をむなしくかかせておきながらも[徒令搔乍] <4권 562>
- ⑥ ---天への道を教えてやっておくれ[阿麻治思良之米] <5권 906>
- ⑦ ---足にけがをなさるな[安思布之牟奈]杵をはきなさいあなた <14권 3399>
- ⑧ ---箱だけにしまっておいた人が玉を嘆かせるのだ[玉令<sup>レ</sup>詠流] <7권 1325>
- ⑨ ---恋しがらせるのは[令恋波]良くないことです <11권 2584>
- ⑩ ---真弓を射ておいて反らせたままだったら[西良思馬伎那婆]弦がかかるものか <14권 3437>
- ⑪ ---恋もなくいられたらゆへよいに物思いをさせて[於毛波之米都追] <15권 3737>
- ⑫ ---花の盛りに逢わせ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す[阿比見之米等曾] <17권 4008>
- ⑬ ---山人がわたしにくれた[和礼爾依志米之]山のみやげだこれは <20권 4293>
- ⑭ ---かのまづく人そおたはふさあ寝させておくれとら[伊射禰之売刀良] <14권 3518>

등으로 나타난다. 예문 ①~⑭는 「シム」의 예문으로 [令落/令満/令干]등의 형태로 사역의 기능으로 용자되고 있다. 사역의 조동사 「シム」는 「未然形(シメ)/連用形(シメ)/終止形(シム)/連體形(シムル)/已然形(없음)/命令形(シメ)」로 활용하며 未然形에 접속하는 조동사이다. 앞선 예문 중에서 예문①②④⑤⑩⑪⑬는 連用形 예문②⑦은 終止形 예문⑧⑨은 連體形 예문③⑥⑫⑭은 命令形로 분석된다. 차자의 체계로 분석하면 예문 ①②④⑤⑧⑨의 경우는 「令」의 正訓字표기가 예문 ⑥⑦⑩⑪⑫⑬⑭의 경우는 「之米 /志米 /之賣/思馬/之牟」 등의 音假名표기가 나타나고 예문③의 경우는 [相見染跡衣(アヒミシメトソ)] 「染」의 訓假名표기가 독특하다. 또한 예문⑧의 경우는 [玉令<sup>レ</sup>詠流(シムル)]에서 「令(正訓字)+流(音假名);シムル」의 구조로 音假名「流(ル)」를 첨가표기해서 그 어형이 「連體形(シムル)」임을 지시하고 있다.<sup>35)</sup> 예문⑩의 경우는 [西良思馬伎那婆]에서 「思馬(シメ);使役+伎(キ);過去助動詞/連用形接續」의 구조로 분석되어서 「思馬(シメ)」가 連用形임을 뒷받침 해 준다. 또한 上代特殊假名遣의 관점에서는 「思馬(シメ)」의 「馬

바 있다.

35) 이러한 어형지시는 신라향가에도 유사예가 존재한다. ①世理都之叱逸鳥隱第也(누리모蹠갓어히운갓여) <怨歌8행> ②郎也慕理尸心未行乎尸道戸(郎이여그릴마스막춧녀올길) <慕竹旨郎歌7행> ③兩手集刀花乎白良(두손모도고조슬박) <願往生歌 6행>

(メ);甲류)가 용자된 점은 예외적이다.<sup>36)</sup> 또한 「シム」는 『萬葉集』 이외의 상대문헌에서

- ① 皇御孫命爾安国止平久所知坐之米牟止申氏 〈出雲国造神賀詞〉
- ② 堅磐常磐仁齐奉利氏伊賀志御世仁榮志米奉利 〈中臣寿詞〉
- ③ 一二乃国仁軍丁乎乞兵發之武 〈28 詔〉
- ④ 由無之天人爾云聞之牟留事不得猶 〈45 詔〉

등으로 그 예가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학자가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예문①②는 「祝詞」 예문③④는 「宣命」의 예문으로<sup>37)</sup> 「小書き」 표기의 부분에서 「シム」의 표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문①의 「所知坐之米牟止」의 「之米(シメ)」는 未然形 예문②의 「榮志米奉利」의 「志米(シメ)」는 連用形 예문③ 「乞兵發之武終止形」의 「之武(シム)」는 終止形 예문④ 「云聞之牟留事」의 「之牟留(シムル)」는 連體形으로 분석된다. 借字의 측면에서는 모두 音仮名표기 「之米/志米/之武/之牟留」이고 「メ」는 2회 모두 乙류인 「米」를 사용하고 있다. 조동사 「シム」는 上代假名遣에서 「未然形;シメ(乙) 連用形;シメ(乙) 命令形;シメ(乙)」등으로 용자하므로 「メ」의 사용이 빈번한데 「メ(甲/乙)」의 용자적인 특징은 甲류의 경우 빈도수 제1假名인 「賣」에 乙류의 경우 제1假名인 「米」에 용자의 90%이상이 집중된다는 점이다<sup>38)</sup> 또한 音假名에 비해서 빈도수나 假名 의 수에 있어서 열세인 訓假名 의 사용이 다른 假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으며 音假名과 마찬가지로 訓假名 의 사용도 빈도 제1假名인 「女(甲)」와 「目(乙)」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 6. 맺음말

이상에서 正倉院萬葉假名文書(乙種)에 관하여 그 原文을 분석하고 원문의 어휘를 중심으로 萬葉假名表記(借字表記)의 관점에서 上代特殊假名づかい(甲/乙)表記, 敬語表記, 助動詞表記 등에 관해서 상대문헌 전반을 통해서 비교 고찰해 보았다. 2장 원문의 분석에 있어서는 문서의 성격상 缺字부분도 있고 平假名(ひらがな)표기로 보이는 부분과 의미불명인 부분도 있어서 대략적인 분석만이 가능했다. 3장에서는 원문 중 上代特殊假名づか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어휘를 다루었다. 「ひと」「とこ」「よね」등은 비교적 정연한 표기를 보였으며 「やしなひ」「みなみ」는 상대문헌 전체에서 용례가 적어서 성격을 일률적으로 정돈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おく」의 경우는 「連用形(オキ)甲/ 命令形(オケ)甲」에서 비교적 정연한 표기가 나타났다. 3장과 4장의 경어와 조동사의 표기에 있어서는 활용형에 관련되는 上代特殊假名づかい(甲/乙)를 중심으로 그에 연관되는 문법적인 활용과 접속 등의 万葉假名表記(漢字借用/借字表記)를 분석해서 다양한 상대문헌자료와 비교 분석 하였다. 「マシマス」는 「居ル」의 존경어 「マス」에 존경의 보조동사인 「マス」를 반복함으로써 보다 존경도를 높인 최상의 경어표현으로 「居/在/坐/有」등의 正訓字표기가 주로 나타났다. 「マツル」는 본동사로서는 『古事記』 『日本書紀』 등과 『萬葉集』 등에 비교적 소수의 예

36) 이러한 예외성은 예문⑩에 『萬葉集』 권14의 「防人(さきもり)歌」라는 특수성도 고려되어진다.

37) 「祝詞」 「宣命」 상대문헌 중 비교적 후대의 것

38) 「メ(甲)」 「賣·咩·馬·面·謎·迷·綿 (女·婦)」

「メ(乙)」 「米·梅·迷·昧·每·妹 (目·眼)」

를 보이고 대부분은 보조동사로 많은 용례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보조동사는 주로 「仕へまつる」「立てまつる」의 형태로 완성되며 중고이후로 진행되어진다. 「シム」는 使役의 조동사로 借字체계로는 「令」의 正訓字표기와 「之米 / 志米 / 之賣 / 思馬 / 之牟」 등의 다양한 音仮名표기가 나타나고 訓仮名표기와 「令(正訓字)+流(音仮名); シムル」 등의 音仮名の 첨기(添記)표기의 예도 나타났다. 上代特殊假名づかい에서는 「未然形; シメ(乙) 連用形; シメ(乙) 命令形; シメ(乙)」 등으로 활용해서 「メ」의 사용이 빈번한데 「メ(甲/乙)」의 용자적인 특징이 甲류의 경우 빈도수 제1假名인 「賣」에 乙류의 경우 제1假名인 「米」에 用字의 90% 이상이 집중된다는 특징을 보였다.

## 【참고문헌】

- 金完鎭(1980) 『郷歌解讀法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pp.61-66  
 南豊鉉(2009) 『古代韓國語研究』 시간의 물레 pp.122-139  
 李鍾徹(1991) 『萬葉と郷歌』 東方書店 pp.42-77  
 이지수(2014.9) 「正倉院萬葉假名文書(甲)에관한一考」 『일본어학연구』 제41집 한국일본어학회 pp.131-148  
 \_\_\_\_ (2014.5) 「〈佛足石歌〉에 관한 일고」 『일어일문학연구』 제89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229-251  
 \_\_\_\_ (2012.11) 「〈上宮記逸文〉에관한일고」 『일어일문학연구』 제83집 한국일어일문학회 pp.407-427  
 \_\_\_\_ (2006.3) 「『萬葉集』에 나타난 漢字借用表記의 特殊한 運用」 『제15집 한국일본어학회』 pp.153-170  
 柴原永遠男(2011) 『正倉院文書入門』 角川學藝出版 pp.35-62  
 江湖山恒明(1978) 『上代特殊假名遣研究史』 明治書院 pp.23-33  
 大野透 『新訂万葉仮名の研究』 東京高山本店 pp.40-55  
 大失透(1970) 『假名源流考及証本寫眞』 勉誠社 pp.64-69  
 春日和男外(1984) 『敬語史』 講座敬語史 大修館書店 pp.35-96  
 龜井孝(1977) 『日本語の歴史2』 2.文字とのめぐりあい 平凡社 pp.357-359  
 久松潜一(1973) 『成立と影響』 万葉集講座 第一卷 有精堂, pp.183-194  
 姜斗興 (1982) 『史讀と万葉仮名の研究』 和泉書院刊 pp.173-188  
 小松英雄(1982) 『日本語의 世界7 日本語の音韻』 中央公論社 pp.101-130  
 佐藤喜代治編(1989) 『漢字と假名』 漢字講座 4 明治書院 pp.225-255  
 正倉院文書研究會編(1993) 『正倉院文書研究1』 吉川弘文館 pp.1-35  
 正倉院文書研究會編(1994) 『正倉院文書研究2』 吉川弘文館 pp.1-33  
 築島裕(1981) 『日本語의 世界5 假名』 中央公論社 pp.58-61  
 大野晉(1977) 『岩波講座 日本語 5 音韻』 岩波書店 pp.147-220  
 鶴久(1995) 『萬葉集訓法研究』 櫻風社 pp.583-613  
 \_\_\_\_ (1977) 『岩波講座 日本語 8 文字』 岩波書店 pp.244- 245  
 中田祝夫編( 1972) 『音韻史/文字史』 國語史講座 2 pp.368.-291  
 西宮一民 (1980) 『日本上代の文章と表記』 風間書房 pp.15-37  
 白藤禮幸(1987) 『奈良時代國語』 國語學叢書 2 東京堂出版 pp.36-39  
 橋本四郎(1987) 『橋本四郎論文集』 國語學編 角川書店 pp.297-316  
 林四郎·南不二男 編 (1973) 『上代·中古敬語』 敬語講座2 明治書院 pp.33-38

- 正宗敦夫(1994) 萬葉集總索引(漢字編) 平凡社 pp.139-140, p.236, p.244  
\_\_\_\_\_ (1994) 萬葉集總索引(單語編) 平凡社 p.1193, p.999  
森山隆(1986) 上代國語の研究 櫻風社 pp.236-252  
山口佳紀(1987) 『古代日本語文法の成立研究』 有精堂 pp.223-432  
山田俊雄(1984) 『日本語の歴史』 2文字とのめぐりあい 平凡社 p.357  
和田軍一(1996) 『正倉院案内』 吉川弘文館 pp.208-213  
吉田金彦(1947) 『上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 p.54

## 〈 要 旨 〉

## 正倉院萬葉假名文書(乙)に関する一考

本稿では正倉院萬葉假名文書(乙)に関して、その原文を分析し、原文の語彙を中心として萬葉假名表記(借字表記)の観点から上代特殊假名づかい(甲/乙)表記、敬語表記、助動詞表記などに関して、上代文献の全般を通じて比較/考察してみた。2章原文の分析においては、文書の性格上、欠字部分もあり、平假名(ひらがな)表記に見える部分と意味不明の部分もあって、大まかな分析だけが可能だった。3章では、原文の中で上代特殊假名づかいの対象になれるすべての語彙を扱った。「ひと」「とこ」「よね」などは比較的整然な表記を示して、「やしなひ」「みなみ」は、上代文献の全体での用例が少なくて、性格を一律的に整頓するには難しい点があった。「おく」の場合は、「連用形(オキ) 甲/命令形(オケ) 甲」で比較的整然な表記が表れた。3/4章の敬語/助動詞の表記においては、活用形に関連する上代特殊假名使用(甲/乙)を中心として、それに関連する文法的な活用と接続などの萬葉假名表記(漢字借用/借字表記)を分析して、多様な上代文献資料と比較/分析した。「マシマス」は「居ル」の尊敬語「マス」に尊敬の補助動詞である「マス」を反復することによって、より尊敬度を高めた最上の敬語の表現として「居/在/坐/有」などの正訓字表記が主に表れた。「マツル」は、本動詞としては、『古事記』『日本書紀』など『萬葉集』などに、比較的少数の例を見せて、大部分は補助動詞として多くの用例を表している。これら補助動詞は、主に「仕へまつる」「立てまつる」の形で完成し、中古以後に進行される。「シム」は使役の助動詞で、借字体系では「令」の正訓字表記と「之米/志米/之賣/思馬/之牟」などの多様な音假名表記が表れて、訓假名表記と「令(正訓字)+流(音假名):シムル」などの音假名の添記(添記)表記の例も表れた。上代特殊假名の使用では、「未然形:シメ(を) 連用形:シメ(を) 命令形:シメ(を)」などで活用して「メ」の使用が頻繁だが、「メ(甲/乙)」の用字的な特徴が甲類の場合は、頻度数第1假名の「賣」に、乙類の場合は、第1假名「米」に用字の90%以上が集中される特徴を見せた。

論文分野：音韻論

キーワード：萬葉假名文書、上代特殊假名遣(づかい)、正訓字表記、借字表記、上代敬語

## ■ 이지수 (李知洙)

한국외국어대학교 / 백석예술대학교, 강사  
likejisoo@hanmail.net

- 投稿日 : 2015년 3월 20일
- 審査開始 : 2015년 4월 13일
- 審査完了 : 2015년 5월 3일
- 掲載確定 : 2015년 5월 18일